



대한민국
손흥민

러시아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

벨기에
에당 아자르

알제리
소피앙 페굴리

HOT한 H조 뜨거운 승부

AFP통신, 손흥민 등 5명 '눈여겨봐야 할 선수' 선정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한국이 속해 싸울 H조 벨기에, 러시아, 알제리 등에서 주목할 선수는 누구일까.

10일(한국시간) AFP통신은 벨기에의 아자르와 악셀 위첼(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 알제리의 이슬람 슬리마니(스포르팅 리스본),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케르자코프(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 한국의 손흥민(레버쿠젠) 등 5명을 H조에서 눈여겨봐야 할 선수로 선정했다.

아자르는 H조 최강 벨기에에서도 전술의 핵으로 꼽히는 선수다.

1991년생이지만 벌써 국가대표로 44경기에 나섰다.

AFP통신은 "유럽에서 가장 돋보이는 원어 중 한명"이라며 "때로 게으르다는 비판도 받지만 이번 월드컵은 그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보여줄 기회"라고 평가했다. 아자르는 두려움 없는 플레이와 공을 다루는 외중에도 폭발적인 스피드가 강점이다.

2011년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1부 리그) 정상에 올려놓고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로 이적한 그는 이번 월드컵 이후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끌어모으는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으로의 이적이 점쳐지고 있다.

아자르의 동료 위첼은 돋보이지는 않아도 벨기에의 부상을 묵묵히 뒷받침하는 선수로 평가받는다.

2009년 벨기에 프로축구 스타다르 리에주에서 뛰면서 라이벌 안더레흐트 선

■대한민국 손흥민
아시아 영광의 시대 열 선수

■벨기에 아자르
유럽에서 가장 돋보이는 원어

■알제리 슬리마니
그가 있으면 알제리는 강팀

■러시아 케르자코프
카펠로 사단 부동의 원톱

수에게 깊은 태클을 가해 큰 부상을 유발해 약명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중원에서의 위력적인 플레이로 아자르와 루카쿠를 충실히 지원하면서 대표팀에서 확고히 자리 잡았다.

알제리의 슬리마니는 포르투갈의 명문 축구 클럽인 리스본에서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다.

AFP통신은 "그의 존재는 이번 월드컵에서 알제리를 쉽게 여길 수 없는 이유"라는 말로 슬리마니의 위상을 요약했다.

2009년 알제리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로 옮길 당시 그의 몸값은 1만5천 유로(약 2천만원)였으나 지금은 그를 둘러싸고 1천만 유로(약 138억원) 규모의 이적 논의

가 오가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다만 흥분으로 경기를 그르치기도 한다는 평가도 있다.

알제리에는 소피앙 페굴리(발렌시아)도 있다. 알제리계로 프랑스 대표팀의 '아트사키'를 지휘한 지내던 지단을 연상시키는 플레이 스타일로 '제2의 지단'으로 불리는 선수다.

러시아의 케르자코프는 5명의 선수 중 32세로 가장 나이가 많은 '베테랑'이다. 2002년 한일 월드컵에 교체 선수로 출전, 현재 러시아 대표팀 선수 중 유일하게 월드컵 본선을 경험했다. 그는 제니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불박이 공격수로 활약하면서 지금까지 200골 이상을 기록했다.

파비오 카펠로 러시아 대표팀 감독은 그간 러시아 축구의 스타였던 안드레이 아르샤빈과 로만 파블류첸코를 탈락시키고 케르자코프를 부동의 원톱으로 세웠다. 케르자코프가 카펠로 감독의 기대에 부응할지가 관심사다.

한국 선수로는 손흥민이 이름을 올렸다. AFP통신은 "손흥민은 2002 월드컵의 영웅이었던 홍명보 한국 대표팀 감독이 아시아 축구의 새로운 영광의 시대를 열어젖히는 데 힘을 줄 수 있는 신세대 선수"라고 묘사했다.

아울러 레버쿠젠이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를 지급하고 손흥민을 함부르크에서 데려온 일과 그가 FC서울의 불보이로 축구에 발을 들였다는 일화 등을 소개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대표팀 결전의 땅 브라질 입성

이구아수 베이스캠프서

러시아전 대비 마지막 담금질

홍명보호가 마지막 담금질을 할 이구아수 베이스캠프가 모든 준비를 끝내고 태극전사의 입성을 기다리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2일 오전(이하 현지시간) 브라질 파라나주의 포스 두 이구아수에 도착한다.

11일 저녁 대표팀이 숙소로 쓸 버번 카타라타스 컨벤션 리조트(버번 호텔)는 최소 보름여간 태극전사를 손으로 맞을 모든 준비를 끝낸 듯 평온한 모습이었다.

버번 호텔은 세계적인 명소인 이구아수 폭포에서 불과 12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5성급 휴양 리조트다.

고급 호텔답게 태극전사들이 피로를 풀 수영장과 스파, 개인 훈련을 할 헬스장 등 편의시설이 완비되었다.

홍명보호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물심양면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지난 1월 전지훈련차 이곳을 미리 찾은 대표팀은 몇 가지 보완점을 제시했고 호텔측은 흔쾌히 이를 수락했다고 한다.

일반인이 아닌 대표 선수들이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러닝머신 등 헬스장의 운동 기구를 대폭 확충했다.

또 40여석 규모의 로비층 식당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하의 대규모 연회장을 대표팀 전용 식사 장소로 내뒀다.



2014 브라질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공식 훈련장인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의 페드로 바소 경기장 정문 앞 도로에 태극전사의 사진이 들어간 배너가 걸려 있다. /연합뉴스

대표팀 신동일 부조리장은 일찌감치 버번 호텔에 짐을 풀고 식재료 공수와 밑반찬 준비를 완료해 둔 상태다.

대한축구협회 직원 2명도 선발대로 이곳에 도착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태극전사들이 짐을 푸는 12일 오후부터는 숙박객이 아닌 일반인은 물론 취재진까지 모두 호텔 출입이 금지된다.

대표팀은 방사형 모양으로 지어진 이 호텔의 한 쪽 동 60여개 객실을 사용하는 데 각 층마다 현지의 보안 요원이 하루 24시간 철동 경비를 서게 된다.

2인 1실을 썼던 지난 전지훈련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선수들이 각각 방 하나씩을 써 더 끝맛같은 휴식을 맞볼 수 있게

됐다. 대표팀 관계자는 "파주NFC(축구 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태극전사들이 마지막으로 담금질을 할 훈련장인 페드로 바소 경기장은 호텔에 서 차량으로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있다.

해가 지면 기온이 섭씨 15도 내외로 쌀쌀하지만 주로 훈련이 이뤄질 한낮에는 20~25도 정도여서 축구하기에 딱 좋은 날씨가 된다.

다만 가끔 새벽에 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질 때가 있어 대표팀이 유의해야 한다는 게 현지인들의 전언이다. /연합뉴스

보약, 흥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